

여수 갈치 낚시어선 전복 또 '안전 불감증'

통영 해상서 화물선과 충돌...3명 숨지고 2명 실종 3마일 밖에서 서로 식별 "비켜 가겠지" 안일 운항 사망자 구명조끼 미착용·V-Pass도 작동 안해

경남 통영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여수 갈치 낚시어선 '무적호'(9.77t)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이날 사고로 광주·전남지역의 주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두 선박은 먼거리에서 상대방을 발견했음에도 서로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했고, 사망자들은 모두 필수 안전 장치인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무적호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 Identification System)와 선박자동입출항신고장치(V-PAS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양경찰청과 여수시낚시어선 전복사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4시30분께 경남 통영시 육지도 남방 43해리(약 80km)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무적호(정원 22명)가 화물선 코에타호(3381t·파나마 선적)와 충돌·전복되면서 선장 최모(56)씨 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9명은 구조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장소를 중심으로 수색구역(가로 40해리×세로 30해리)을 확대하고, 해경·지자체·민간 등 선박 42척(해경 13·유관기관 8·민간 21), 항공기 5기, 군경 106명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사고 인근 해역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적호는 코에타호를 육안으로 식별하고도 속도만 다소 늦추었을 뿐 충돌 방지를 위해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았다. 코에타호도 3마일(4.8km) 전에 무적호를 인지했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선박은 사고 직전에야 뒤늦게 항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해경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무적호에 설치된 해양사고 방지 시스템 중 하나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선박 자동입출항신고장치(V-PASS)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V-PASS의 경우 선박이 일정 속도 이상 기울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보내는 기능이 탑재돼 있지만 무적호 사고는 신고를 접수하기 전까지 해경이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접수는 충돌 30분이 지난 11일 새벽 5시께 코에타호가 초단파 위치발신장치인 VHF의 구조신호 버튼을 누르고서 이뤄졌다.

무적호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도 인명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 사고 당시 승선 인원 14명 중 사망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2명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 구조대가 11일 오전 뒤집힌 '무적호' 선내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적호는 이날 새벽 5시께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하며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생존자 7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표류하고 있다가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두 생존자와 사망자 3명은 뒤집힌 선실내 에어포켓(물에 잠기지 않아 형성된 공기층)에서 잠수부들에 의해 사고 3시간 만에 구조되거나 발견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승객은 모두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하며 미착용이 적발되면 선원에게는 300만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무적호의 일부 승객은 선실에서 구명조끼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 갑판에 있던 무적호 사무장은 "사고 직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배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했지만 충돌 1분 만에 배가 뒤집어졌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서로가 안일하게 상황에 대처하다 벌어진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화물선 당직 사관 A(4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또 무적호의 AIS와 V-PASS가 수거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오작동 유무 등을 밝힐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시 부부 가스중독 증세 감압치료...생명 지장 없어

지난 12일 오전 10시 25분께 순천시 별량면 한 주택에서 A(61)씨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A씨 부인의 직장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닥터헬기로 목포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씨 아내는 광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감압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기아차 광주공장 하역업체 직원 안전 사고

하역업체 직원 안전 사고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부품 운송업체 직원 김모(61)씨가 하역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심하게 다쳤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의식과 호흡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품 운송 화물차를 운전하는 김씨는 업무와 무관한 제한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생산 공정은 현재 멈춰선 상태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스쿨 미투' 성추행 여고 교사 2명 집유

광주지법 가해교사 19명 중 첫 재판... "죄질 불량·자백·반성 고려"

여고생 대상 성희롱 성추행 가해 교사가 19명에 달했던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교사 2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승각형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7)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

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학생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승각형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7)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

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해임 정당"

광주지법, 교사 도덕성 요구 재발방지 위해 엄격 잣대 필요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지법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9일 새벽 0시 15분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광주 서구 한 도로를 지나던 도중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여성기사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광주지법경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사의 비위가 교원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억 든 금고 키보드에 신고 출행량

○...고급 주택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60kg의 무게의 금고를 혼자서 들고 나온 20대가 경찰서행.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27)씨는 지난 7월 7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A(44)씨 주택의 유리창을 차량용 비상망치로 부순 뒤 안방으로 들어가 5만원권 400매와 1000만원대의 로렉스 시계 3점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이 보관된 금고(가로 60cm·세로 80cm)를 전용 키보드로 열고 달아났다는 것.

○...A씨의 집에 보안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씨가 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대출 때문에 돈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고급 아파트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를 검색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